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비행의 구조모형 검증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bout Family Relationship, Self-Efficacy,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 in Single-Parent Families

이시연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i-Yeon Lee(syl@sjs.ac.kr)

요약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개인내적 심리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총괄적 구조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여 한부모가정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비행의 예방 및 개입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의 횡단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최종분석 대상에는 516명의 한부모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자기효능감과 비행 간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수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변수로서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비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한부모가정 | 가족관계 | 비행 | 자기효능감 | 자아존중감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verall structure among family relationship, self-efficacy,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 in single-parent familie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preventable juvenile delinquency. The data of 51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research into the promotion policie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2012)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alyse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1) family relationship affects self-efficacy,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 (2) family relationship affects delinquency of adolescent by the mediation of self-esteem, (3) self-efficacy doesn't affect delinquency of adolescen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both intervention as well as the development implementation of practical methods for the prevention of delinquency of adolescent.

■ keyword : | Single-parent Family | Family Relationship | Delinquency | Self-efficacy | Self-esteem |

1.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가족형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부모가구의 증가 역시 그 변화의 흐름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한부모가구는 사망, 이혼, 별거, 유기, 미혼 등의 이유로 한명의 부나 모가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이다[1]1).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1995년 5.7%에서 2012년 9.3%로 증가하였다[1][2].

한부모가정의 구성원들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족 기능의 변화, 역할의 재조정 문제, 자녀의 심리 및 행동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은 변화된 가족 구조 속에서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 출생 시 부모 중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삶을 맞이하는 경우부터 성장과정 중 부모의 별거, 이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3]. 한부모가정 청소년은 양부모가정 청소년보다 외현화 문제 및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한부모가정 자녀는 양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5], 흡연, 음주, 무단결석, 인터넷중독 등의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8]. 최근 전국 단위로 실시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보다 비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 특히, 청소년기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과업을 달성해야 하고, 새롭게 주어진 역할에 적응해야 하며,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과도기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렇듯 혼란한 상황에서는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적응의 대표적인 결과가 비행이다. 청소년기는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비행을 일으키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비행행동은 약물남용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10].

한부모가정 청소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다양한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부적응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결손이라는 가정의 구조적 환경 자체에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한부모가정 청소년 각각의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많다[11]. 가족구조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르면, 부와 모가 함께 존재하며 부모 양쪽 모두의 자원을 활용하는 양부모가정에 비해 한부모가정은 취약한 가족환경이다[12]. 이에 반해 가족과정주의자들은 단순히 부모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 혹은 모와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하는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즉, 가족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쪽 부모와 살던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질 높은 상호작용과 가족원간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3][14]. 한부모가정 자녀가 가족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만, 모든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최근 연구들은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요인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보호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내적 보호요인들은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 자아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낙관성 및 영성 등의 요소들이 있다[15-18]. 국내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전국 단위 횡단조사 결과에 의하면[9], 개인 내적 심리요인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 [19-21]과 자아존중감[22-25]은 한부모가정 자녀의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이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다.

그러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과 같은 위험요인에 대한 보호요인을 검증하거나 심리·정서적 개입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그 대상이 아동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한부모가정의 자녀로서 겪는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을 동시

1) 한부모가구는 통계청 자료의 편부모가구와 동일한 개념이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를 의미한다[2].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이러한 법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자만으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구 또는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에 해결해야 하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청소년기의 성공적인 적응이 성인기에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이 된다고 볼 때,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행동 및 정서문제와 같은 위험요인들에 대하여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개인내적 심리요인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서, 결손이라는 가족의 구조적 환경이 아닌 가족과정주의에 초점을 두고 가족관계가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경로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보호요인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한부모가정 청소년 비행의 영향 요인

1.1 가족관계

가족 구조의 전환을 경험한 한부모가정 자녀는 발달 과정에 있어서 외현화 및 내면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26]. 청소년기에 한부모가정이 되는 경험은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가출, 비행 등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3]. 이와 같이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한부모가정의 가족구조적요인보다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서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적응이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강조되고 있다. 즉,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로 지원

하는지 그 ‘관계의 질’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27]. 가족관계는 가족성원 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를 의미하고, 특히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관계의 질은 부모자녀 간 관계와 부모양육태도 등이 주요 예측 변인이다[9].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비행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유대감 등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고 있다[28].

사회적 유대이론에 따르면, 부모와의 유대감 및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기대에 순응해야 한다는 내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에 일탈행동을 쉽게 범할 수 있다[29]. 가족유대가 낮을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수준은 높아졌고[30], 가족응집력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높은 비행 정도를 보인다고 하였다[31]. 낮은 부모 지지는 높은 수준의 외현화문제와 관련되고, 높은 부모 지지가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해주는 요인이 된다[32]. 청소년들의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 집단 특성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일탈행동 경험 집단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은 더 적게 받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 또한 더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33]. 또한 청소년기 비행행동의 감소를 위해 부모양육행동의 초기강화가 중요하며, 청소년기에 부모양육행동에 초점을 둔 가족체계 개입이 비행행동의 감소 및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34].

1.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일상사의 사건과 자신의 기능수준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하며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제 중 하나이다[35].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자기효능감과 일탈행동의 관계는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되고 있다. 자기효능감과 청소년의 일탈행동의 상관을 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36].

이와 반대로,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휴대폰 의존에 대한 강박·급단적 증상과 사용통제의 어려움이 낮아졌다[37]. 이는 청소년기 발달상 자기효능감 형성

과 향상이 매우 중요하며, 충동성과 통제성이 연관된 자기효능감의 자기조절능력이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해매체의 남용 및 의존과 같은 비행행동의 위험요인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건강위험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및 약물, 비행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한다[38].

1.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주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정서적 경험을 통해 그들의 반응과 평가를 반영하는 평가 과정이다. 또한 주위 인물과의 사회적인 비교 과정이고 행위 결과에 의하여 자기 역량을 평가하는 자기귀인과정이다[39].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학습수행능력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이나 일탈 행동의 예언변인이 되기도 한다[40].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라고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소수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41]. 특히,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강조되고 있다[42][43].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출빈도는 감소하였다[44][45].

자아존중감이 높은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은 자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46].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청소년의 건강관련행위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비행과의 상관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47].

2.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청소년기에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자기효능감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는 부모라고 밝혀졌다[35]. 특히, 부모와의 유대관계 정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 피드백을

받아 스스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8]. 부모와의 유대관계와 함께 가족관계의 주요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에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는 자기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지각될수록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학생 모두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를 존중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았고[50],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48]. 이와 같이 가족관계 질의 주요 변인이 되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고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는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영향을 미친다. 가족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상호관계를 통해 가족들에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의 경험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되므로 부모와의 친밀감, 가족의 응집과 적응과 같은 가족관계가 주요한 관련 변수이다[52].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3]. 경제적, 구조적 측면에서 열악한 가정환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긍정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된다면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3].

가족요인인 부모 변인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경로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54]. 지지적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 수준을 낮추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매개 경로는 유의하여 부모의 수용과 감독은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외현화 문제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55].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고 가족 간의 유대가 약할수록 초, 중, 고등학생들은 가출충동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5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력 있는 변인인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가족관계가 긍정적인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문제행동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57].

III. 방법 및 절차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청소년의 비행은 가족관계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한편, 가족관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경로를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서 청소년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 학년은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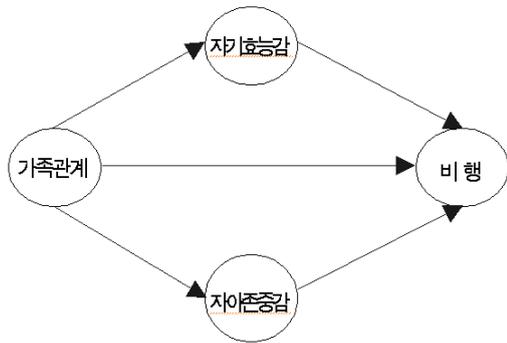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2년에 수행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지원방안 연구’의 자료이다. 이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4~6학년), 중학생(1~3학년) 및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고등학생(1~3학년)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횡단조사이다. 총 표

본조사수는 8,745명이고 초등학교 3,185명(36.4%), 중학교 2,986명(34.1%), 고등학교 2,574명(29.4%)으로 조사되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정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총 표본조사수는 523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측정변수에 대한 결측 자료를 제외하고 중학생 233명과 고등학생 283명으로 총 516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²⁾.

3. 측정도구³⁾

3.1 비행

비행은 흡연, 음주, 절도, 폭행, 강탈, 무단결석, 가출, 음란물(영상, 사진, 서적), 도박(인터넷 포함), 공공기물 파손행위 등의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전혀 없음(1점)’, ‘1~2번(2점)’, ‘3~4번(3점)’, ‘5번 이상(4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의 경험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0.787$ 로 나타났다.

3.2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가족관계 질의 변인으로 측정하고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가족은 서로 아껴준다’,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 준다’,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구성원 간의 유대감이나 친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0.934$ 로 나타났다.

2)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에 있어서 과반수이상인 누락된 변수는 통계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제외하였고[58], 통계처리과정에서 결측 처리는 EM(expectation-maximization)에 의하여 처리하였다[59].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9]에서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의견조사 및 예비조사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한국 청소년 건강 및 안전(보호)지표’이다[60].

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총 3문항으로 '나는 노력하면 대부분의 일을 잘 할 수 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870$ 으로 나타났다.

3.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총 5문항으로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 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 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914$ 로 나타났다.

3.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근거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성별, 경제수준, 학업성적 및 학년을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9]. 성별은 남성이 '1', 여성은 '0'으로 처리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 못산다(1점)~매우 잘산다(7점)'로 구성된 7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적은 '매우 못하는 수준(1점)~매우 잘하는 수준(5점)'으로 구성된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을 '1'로 표기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순차적으로 높은 번호를 매겨서 고등학교 3학년은 '6'으로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초통계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를,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석하고,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랩 방식(bootstrapping)을 적용하였다.

IV.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표 1]에서와 같이 남학생은 277명(53.7%), 여학생은 239명(46.3%)으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았다. 학교급별은 중학생은 233명(45.2%), 고등학생은 283명(54.8%)으로 고등학생이 보다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2학년이 105명(20.3%)으로 가장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516)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277	53.7		
	여	239	46.3		
학교급별	중학교	1학년	80	15.5	45.2
		2학년	57	11.0	
		3학년	96	18.6	
	고등학교	1학년	96	18.6	54.8
		2학년	105	20.3	
		3학년	82	15.9	

2. 주요 변수의 정규성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가족관계 2.99(SD=.74), 자기효능감 2.94(SD=.65), 자아존중감 2.94(SD=.70), 비행 1.40(SD=.49), 경제수준 3.50(SD=1.14), 학업성적 2.54(SD=.98)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정규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 구조방정식모형의 정규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표 2.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 = 516)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족관계	2.99	.74	-.47	.04
자기효능감	2.94	.65	-.29	.29
자아존중감	2.94	.70	-.38	.01
비행	1.40	.49	1.87	2.97
경제수준	3.50	1.14	.21	.07
학업성적	2.54	.98	.40	-.09

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가족관계는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인 성별은 비행과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경제수준은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성별 이외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경제수준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비행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년은 자아존중감과만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모두 절대값 $r=6$ 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보다 엄격한 검증을 위하여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1.334~1.526으로 모두 2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 = 516)

	(1)	(2)	(3)	(4)	(5)	(6)	(7)	(8)
(1)가족관계	1							
(2)자기효능감	.450**	1						
(3)자아존중감	.484**	.561**	1					
(4)비행	-.117**	-.017*	-.070*	1				
(5)성별	-.073	-.022	-.055	-.260**	1			
(6)경제수준	.233**	.170**	.160**	-.035	-.027	1		
(7)학업성적	.155**	.216**	.210**	-.099**	-.009	.139**	1	
(8)학년	-.015	.065	.115**	.081	.040	-.259	.124	1

* $p<.05$, ** $p<.01$

4. 연구모형 분석

4.1 측정모형 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구조모형의 분석을 통해 변수간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비행은 잠재변수로서 측정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은 각 문항이 측정 변수로 분석되었고, 비행은 3개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187.125(df=61)$, $p=.000$ 으로 카이제곱통계량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CMIN/DF값이 3.068로 나타나 본 연구 모형이 표본공분산행렬을 잘 적합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TLI=.901, CFI=.932로 모두 .90 이상이고 RMSEA값이 .08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대해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들을 적절히 반영하여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4.2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제시한 것은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과 비행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 간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날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396), 자아존중감도 높아졌으며(.458), 비행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8).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비행이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77).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분석한 구조모형의 결과를 경로도형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청소년이 가족관계의 유대 및 친밀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비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아존중감과 같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보호요인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의 수준에 따

라서 변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표 4.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 = 516)

측정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가족관계 → 비행	-.178	-.117	.021	-4.325***
자기효능감 → 비행	.010	.017	.025	.762
자아존중감 → 비행	-.377	-.398	.035	-8.743***
가족관계 → 자기효능감	.396	.450	.029	6.881***
가족관계 → 자아존중감	.458	.484	.035	9.82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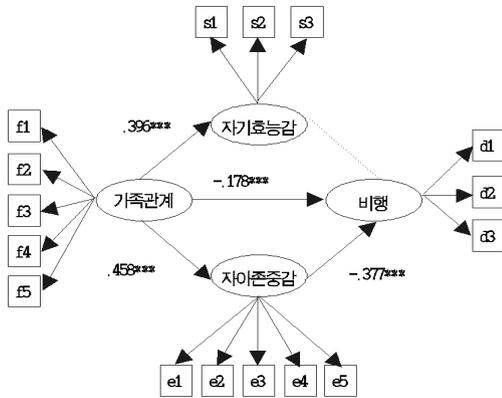


그림 2.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비행의 경로모형

반면,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서 청소년의 비행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36-38].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본 조사에서 활용된 척도의 하위 범주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자기효능감의 척도를 구성하는 범주 중 자기조절 효능감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한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는 하위 변인 중 자신감에 초점을 맞춘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행과 같은 일탈행동과 관련이 있는 충동성과 통제성이 연관된 하위 변인인

자기조절 효능감을 포함하여 자기효능감을 보다 세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트스트랩 방식을 이용하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모형에서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는 경로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와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127~-0.030)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bootstrapping을 적용한 매개효과 검증

모형	비표준화	표준화	SE	95% b-c 신뢰구간
간접효과	-.082**	-.057	.035	(-.127~-0.030**)

**p<.01

V. 논의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개인내적 심리요인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통하여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관계는 청소년 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은 가족관계의 질로 파악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가족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친밀감, 부모자녀 간 관계의 수준에 따라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이 영향을 받는다[28]. 본 연구 결과는 가족유대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일탈행동 수준이 높아지고 가족응집력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높은 비행 정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29-31]와 일치한다.

둘째,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유대관계 정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의 질과 자기효능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48],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가족의 응집과 부모와의 친밀감 등 가족관계와 중요한

관련변수로서 가족관계 질의 수준에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게 된다[3][53].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관계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셋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족관계와 비행의 경로에서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변인과 같은 가족요인과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검증된 선행연구[54]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입할 때 가족관계 증진에 초점을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의 경향은 가족구조의 취약성이 아닌 가족 기능과 가족 탄력성과 같은 가족 요인에 초점을 두고,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환경에 속해있다 하더라도 모든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부적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61]. 특히 가족성원 간의 유대감이나 친밀감,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가족관계의 질에 따라서 한부모가정 자녀의 적응이 영향을 받고, 청소년 비행은 이러한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강조된다[29][62]. 따라서 한부모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중심의 실천적·제도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긍정적인 가족관계의 경험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내적 심리요인을 강화하게 한다.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있다는 선행연구에 따르면[15-18],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중요한 개인내적 보호요인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청소년의 개인내적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의 중요한 기능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한부모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의 심리·정서적 요인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22][23][25][63][64]. 한부모가정 자녀는 발달 단계에 따라 상황에 대한 이해도나 스트레스 상황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므로[3], 아동과는 차별화된 내용으로 청소년기 발달 단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한부모가정의 가족성원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고려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부모가정은 한부모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부모자녀관계가 가족관계의 핵심 요인이지만, 한부모 이외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성인 가구원이나 청소년의 형제자매를 고려하여 한부모가정의 가족관계를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있는 한부모가정 대상의 가족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 전체나 청소년의 멘토 또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부모가정을 가족구조적인 측면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파악하였고, 한부모가정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족관계,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개인내적 심리요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또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횡단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조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의 다양한 가족 유형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부모가정 청소년의 가족관계 변인을 보다 명확하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부자, 부녀, 모자, 모녀 가족의 형태와 형제자매 및 함께 살고 있는 조부모 등의 성인 가구원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e-나라지표, 2014.
- [2] 통계청, e-나라지표, 2013.
- [3] 김순옥, 전주람, 김영숙, “한부모 가족의 자녀에 대한 연구고찰-가족학 전문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7권, 제1호, pp.113-128, 2012.
- [4] 남현주, 윤형식, 이태영, 신채영, 이동훈,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8권, 제1호, pp.29-168, 2013.
- [5] R. Garg, S. Melanson, and E. Levin, “Educational Aspirations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rom Single-Parent and Two Biological Parent Families: A Comparison of Influential Fac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6, No.8, pp.1010-1023, 2007.
- [6] 오승환,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가족 기능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연구-양친가족, 편부가족, 편모가족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12권, pp.77-107, 2001.
- [7]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1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2012.
- [8] J. Mandara, S. Rogers, and R. Zinbarg, “The Effect of Family Structure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Marijuana U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3, No.3, pp.557-569, 2011.
- [9]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김혜인,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II: 총괄보고서*, 2012.
- [10] C. Proveni, *Moderators Affecting Outcome in a Preventive, Family-Based Intervention for at Risk Young Adolescents*, Ph.D. diss. Fordham University, 2003.
- [11] 정묘순, “한부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교”, 청소년문화포럼, 제26권, pp.192-229, 2011.
- [12] O. Erel and B. Burman, “Interrelatedness of Marital Relations and Parent-Child Relation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118, pp.108-132, 1995.
- [13] 정소희, “갈등적인 부부관계와 한부모가족, 어느 것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더 해로운가?”, 사회복지연구, 제42권, 제4호, pp.165-186, 2011.
- [14] J. Hilton and K. Kopera-Frye, “Differences in Resources Provided by Grandparents in Single and Married Parent Families,”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Vol.47, No.1/2, pp.33-54, 2007.
- [15] 김선아, “이혼가정아동의 외현적 공격성과 내면 문제 발달궤적과 초기 보호요인과의 관계: 결혼가정과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3호, pp.5-34, 2011.
- [16] 김승경, 강문희, “이혼가정아동의 탄력성에 대한 위험·보호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아동학회지, 제26권, 제1호, pp.261-278, 2005.
- [17] 남영옥,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1권, 제3호, pp.219-243, 2010.
- [18] 석주영, 박인진,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 애착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2호, pp.29-50, 2009.
- [19] 권선영, 이미옥, “입체조형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집단미술치료가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제18권, 제3호, pp.1-20, 2011.
- [20] 김인자, 최연실, “한부모가족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27권, 제1호, pp.145-164, 2009.
- [21] 정문자, 김은영, “이혼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 모형 개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43권, 제3호, pp.161-183, 2005.

- [22] 김경신, “이혼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우울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제4권, 제2호, pp.35-54, 2009.
- [23] 김정희, 정다운,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참여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0권, 제5호, pp.967-981, 2011.
- [24] 박설미, 여인숙, “놀이 중심의 이야기치료 프로그램이 한부모 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제13권, 제2호, pp.29-44, 2009.
- [25] 오미경, 이수희, “집단놀이치료 활동을 통한 한부모 가족 방임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문제행동에 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37-259, 2010.
- [26] K. Magnuson and L. Berger, “Family Structure States and Transition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Well-Being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71, No.3, pp.575-591, 2009.
- [27] 이주리,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내면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정서적 조절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제29권, 제3호, pp.115-125, 2008.
- [28] 최해경, “사회적 지지망 구조가 편부모가족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3권, pp.377-395, 1997.
- [29] C. Dorius, S. Bahr, J. Hoffmann, and E. Harmon, “Parenting Practices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s and Adolescent Marijuana Us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6, No.1, pp.163-178, 2004.
- [30] 이상문,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 미국청소년패널조사(NYS)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9권, 제4호, pp.162-197, 2005.
- [31]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12-124, 1992.
- [32] K. Rodgers and H. Rose, “Risk and Resiliency Factors among Adolescents Who Experience Marital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4, No.4, pp.1024-1037, 2002.
- [33] 김영희, 박영신, 김의철, “청소년의 일탈행동 무경험 집단과 경험집단의 환경, 심리, 행동 특성의 차이 분석”, 아동교육, 제13권, 제2호, pp.201-219, 2004.
- [34] 이상균, “청소년기 경비행행동과 부모양육행동간의 병렬적 잠재성장모형 분석-청소년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가?”, 한국가족복지학, 제27호, pp.243-266, 2009.
- [35] A. Bandura,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4, No.3, pp.359-373, 1986.
- [36] 최순화, 김정옥, “중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현실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4권, 제4호, pp.299-332, 2010.
- [37] 전효선, 정혜정, 이주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휴대폰 의존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8권, 제4호, pp.53-70, 2014.
- [38] 최인재, 이기봉, 김청송, 김진호,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 V-2010 한국 청소년 건강 안전(보호) 지표 활용 분석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 [39] R. L. Rosenberg,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1979.
- [40] 손지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1] B. Kaplan, “Prevalence of the Self-Esteem Motiv,” In M. Rosenverry & B. Kaplan(Eds.), *Social Psychology of the Self-Concept* (pp.139-151), Arlington Heights Illions: Harlan

- Davison, 1982.
- [42] 민원홍,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73호, pp.265-290, 2014.
- [43] M. Carr and T. Vandive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mong Youth Offenders,” *Adolescence*, Vol.36, No.143, pp.409-426, 2001.
- [44] 이상무, 남성희, “청소년 가출빈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을 활용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1호, pp.85-108, 2012.
- [45] 이수림, 송미경, 김은영, 송현동, “쉼터 거주 가출 청소년의 가출 이전과 이후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pp.491-519, 2011.
- [46] 차유림,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혼가족과 사별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제21권, pp.31-55, 2011.
- [47] 최진, 김미예, “고등학교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제15권, 제2호, pp.182-189, 2009.
- [48]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김리자, “중학생의 부모-자녀 유대와 자살사고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지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학교, 제8권, 제2호, pp.199-217, 2011.
- [49] 문현실, *중학생에 의해 지각된 부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 및 사회성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50] 최신혜, *고등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불안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삼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51]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제10권, 제8호, pp.327-333, 2012.
- [52] 최유진, 유계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교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제3호, pp.59-75, 2007.
- [53] 이주리,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외현화 문제 간 관계: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8권, 제2호, pp.123-130, 2010.
- [54] M. Donnellan, K. Trzesniewski, R. Robins, T. Moffitt and A. Caspi,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Vol.16, No.4, pp.328-335, 2005.
- [55] 이주리, “중학생의 부모양육태도와 외현화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아통제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탐색”, 인간발달연구, 제15권, 제2호, pp.89-104, 2008.
- [56] 박정선, 황성현, “청소년 가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출충동 변인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0호, pp.1-21, 2010.
- [57] 김태현, 이영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기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0권, 제3호, pp.173-193, 2005.
- [58] J. Cohen and P. Cohen,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1983.
- [59] 배병렬,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2014.
- [60] 최인재, 이기봉, *한국 청소년 지표 조사V-2010 한국 청소년 건강·안전(보호) 지표 조사 자료집*, 2010.
- [61] 김현주, 이성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제13권, 제3호, pp.215-241, 2011.
- [62] 김경,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2권, 제4호, pp.1-21, 2010.
- [63] 김인숙, 김명숙, “노인·한부모·저소득 가정 아동

을 위한 무용/동작치료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논문집, 제8권, 제1호, pp.23-52, 2007.

[64] 최윤영, “집단 무용치료가 부자 가정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지, 제10권, 제2호, pp.35-47, 2010.

저 자 소 개

이 시 연(Si-Yeon Lee)

정회원



- 2001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서울장신대
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